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정서법상 표기*

전 경 재**

【목차】

1. 앞서 하는 말
2.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규정과 ‘불변화사’
3.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
4. 맺는 말
 - 참고 문헌
 - Zusammenfassung

1. 앞서 하는 말

1996년에 나온 독일어 정서법의 신규정에서는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의 원칙에 대해 “띄어쓰기와 붙여쓰기를 규정하는 데 있어 그 출발점은, 단어를 띄어서 쓰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이고, 따라서 붙여쓰기에 대해서만 따로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고 기술하고 있다. 이 막강한 원칙에 따라 정서법 개혁 전에 붙여서 쓰던 적잖은 단어들을 줄지에 띄어서 써야만 했는데, 이로 인한 표기상 혼란과 불합리한 띄어쓰기로 인한 의미상 오류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계속되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나온 독일어 정서법 개정안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고수되었다. 하지만 결국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이 원칙이 사라지게 된다. 그 배경에 대해 독일어 정서법

* 이 논문은 2007년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2007-G).

**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gjjun@hanyang.ac.kr)

1) Vgl. 전경재(역): 독일어 정서법, S.43.

협의회²⁾의 사무총장인 귀터르트는, 독일어의 최근 역사에서 통사적으로 인접한 단위들을 특정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 경향이 관철되었는데, 이런 발전 경향을 고려해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각자 지닌 고유한 언어적 기능이 제대로 부각되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독일어 정서법 협의회가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

이렇게 띄어쓰기가 정상적인 경우라는 정서법 개혁의 규정이 없어지면서, 독일어 정서법에서 가장 양상이 복잡한 영역인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어느 정도 안정이 갖들게 되었지만, 그 동안 있었던 급격한 변화와 번복 때문에 띄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붙여서 써야 하는지를 분간하기가 힘든 결합체들이 적잖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은 특히 불변화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의 경우에 심한데, 이에 본고에서는 이런 결합체들의 표기에 대한 규정이 어떤 변화를 겪었고 실제로 이런 결합체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유형을 택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불변화사’의 원어인 ‘Partikel’이 워낙 다양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의 표기 문제를 올바르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우선 독일어 정서법의 신규정에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을 철저히 품사와 관련지워 기술하면서 도입한 ‘Partikel’이란 개념이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삭제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규정과 ‘불변화사’

1991년에 간행된 두덴 정서법 제20판⁴⁾에서는 지침 205부터 지침 212까지

2) 정서법 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12월에 설립된 Rat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을 말한다.

3) Vgl. Güthert: Zur Neuregelung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 ab 1. August 2006, S.6.

에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데, 지침 205에서 “동사가 두 번째 구성부분인 결합체는, 단순한 병렬이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결합을 통해 생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붙여서 쓴다.”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실례들을 든다. Wenn du nicht fleißiger bist, wirst du *sitzenbleiben.*; Du sollst dich nicht *gehenlassen.*; Er wird uns bei diesem Fest *freihalten.*; Wir werden Ihnen die Summe *gutschreiben.*; Wie die Tage *dahinfliegen!*; Diese Arbeit ist ihm *schwergeworfen.*⁵⁾ 그리고 이어서 지침 206에서 “만약 두 단어가 아직 자신들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띄어서 쓴다.”고 규정하고, 다음을 실례로 든다. Du sollst auf dieser Bank *sitzen bleiben.*; Du kannst ihn um fünf Uhr *gehen lassen.*; Er wird seine Rede *frei halten.*; Diese Schülerin kann *gut schreiben.*⁶⁾

이상의 실례들에서 보이듯, 두덴 정서법⁷⁾에서는 동사가 기반인 결합체에 있어서 그 첫 구성부분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몽땅그러서 붙여서 쓰는 경우와 띄어서 쓰는 경우에 대해 각각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는 결합체를 이루는 구성부분들의 품사가 무엇인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붙여쓰기에 대해 기술할 때는 품사에 관한 언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두덴 정서법에서 동사가 기반인 결합체의 첫 구성부분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이런 결합체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관해 기술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1996년의 독일어 정서법 신규정에서는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을 철저히 품사와 관련지워 기술하고 있다.⁸⁾ 그리고 동사가 두 번째 구성부분인 결합체에 관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관한 규정들을

4) 두덴 정서법 제20판이 독일어 정서법의 변천사에서 지니는 특별한 의의와 이 판의 정서법 개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경재: 형용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표기에 관한 규정의 변화, S.284f. 참조.

5) Vgl. Dudenredaktion (Hg.): Duden. Rechtschreibung der deutschen Sprache, S.62.

6) Vgl. Ebd.

7) 이하에서 두덴 정서법의 판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덴 정서법’은 ‘두덴 정서법 제20판’을 가리킨다.

8) Vgl. 전경재(역): a.a.O., S.44.

두고 있는 제1절에서도 첫 구성부분의 품사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런 결합체들을 세분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제1절 동사의 첫 조항인 제33조에는 “Substantive, Adjektive oder *Partikeln* können mit Verben untrennbare Zusammensetzungen bilden. Man schreibt sie stets zusammen.”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제1항에서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에 대해 기술하고, 제2항에서 형용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실례들을 들고, 제3항에서 ‘Partikel’⁹⁾과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실례들을 들고 있다.¹⁰⁾

이렇게 볼 때 이런 기술 방식이 동사가 기반인 결합체에 있어서 그 첫 구성부분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붙여서 쓰는 경우와 띄어서 쓰는 경우에 대해 각각 지침을 작성한 두덴 정서법의 기술 방식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명사나 형용사는 정체가 확실한 품사임이 틀림없으나, ‘Partikel’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Partikel’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가 ‘Partikel’에 속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명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해당 품사에 속하는 단어가 동사와 분리될 수 없는 합성어를 이루게 되면, 화자가 아무 문제없이 이 조항에 따라 항상 붙여서 쓰면 되는 반면에, ‘Partikel’의 경우에는 그것의 정체를 화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Partikel’과 동사로 이루어진 분리될 수 없는 합성어는 항상 붙여서 쓴다는 규정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Partikel’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된 2004년의 규정에서는 제33조에서 같은 내용을 쓰면서 ‘Partikel’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다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여기서는 “Substantive, Adjektive oder *Partikeln* (*Präpositionen, Adverbien*) ...”이라고 쓴다.¹¹⁾ 그런데 여기서도 제

9) durch-, hinter-, über-, um-, unter-, wider-, wieder- 등이 실례로 나와 있다.

10) 첫 실례로 durchbrechen을 들고 그 용례로 *er durchbricht die Regel, zu durchbrechen*을 실었다. 다른 실례들은 hintergehen, übersetzen, umfahren, unterstellen, widersprechen, wiederholen 등이다. Vgl. Ebd. S.45f.

11) Vgl. Zwischenstaatliche Kommission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Hg.): Deutsche Rechtschreibung, S.34.

3항의 내용은 1996년의 독일어 정서법 신규정의 제33조 제3항의 내용과 똑같다. 다시 말해 2004년의 규정도 ‘Partikel’의 정체에 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Partikel’에 속하는 몇몇 단어들만 갖고 ‘Partikel’과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붙여쓰기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후 이 용어가 계속 문제가 되자, 2006년의 규정에서는 같은 곳에서 ‘Partikel’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Substantive, Adjektive, Präpositionen oder Adverbien ...”이라고 쓴다. 그렇게 하면서 제3항에서도 ‘Partikel’을 빼고 그 대신 전치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부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동사와 결합체를 이루는 durch-, hinter-, über-, um-, unter-, wider-, wieder- 등이 각각 전치사에 속하는지 아니면 부사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¹²⁾

이런 상황 전개를 보면서, 1980년에 하인츠 룽 교수의 발의로 독일어 정서법 개혁의 문제들을 다루는 회의가 열린 이래, 약 15년간의 논의를 거쳐 독일어 정서법의 신규정이 마련되었는데¹³⁾, 어떻게 독일어 정서법의 한 영역인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rtikel’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적어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든가 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해서 규정들을 만들었을까하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문은, 독일어 문법에서 ‘Partikel’이란 개념이 얼마나 다양하게 다루어지는가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헬비히/부샤는 독일어에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4개의 주품사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기능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그 구성원이 숫적으로는 아주 미미하지만 등장 빈도는 아주 크고, 폐쇄적인 집단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품사와 구별된다고 한다.¹⁴⁾ 그들은 기능어의 범주에 관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Partikel’, 양상어, 부정어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¹⁵⁾ ‘Partikel’은 어형이 변화될 수 없고, 독일어에 약 40개 정도 있다고

12) Vgl. Rat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Hg.): Deutsche Rechtschreibung, S.34.

13) 독일어 정서법 개혁의 배경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경재: 독일어 정서법의 신 규정, S.473ff. 참조.

14) Vgl. Helbig/Buscha: Deutsche Grammatik. S.21.

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날 수 있는가에 따라 6 가지 종류로 나눈다.¹⁶⁾

헬비히/부사에서와 달리 두덴 문법 제4판에서는 독일어의 품사를 동사, 명사, 형용사, 관사, 대명사, ‘Partikel’, 감탄사로 분류하고, 이 중 ‘Partikel’을 다시 부사, 전치사, 접속사의 세 그룹으로 나눈다.¹⁷⁾ 여기서는 ‘Partikel’을 다루는 단원에 이 개념에 대한 정의나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단원의 첫머리에 어떤 텍스트를 든 후, 이 텍스트에서 동사, 명사, 형용사, 관사, 대명사에 속하는 단어들을 제외하고 남는 단어들을 ‘Partikel’이란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어서 이들 중 nachmittags, überall, fast는 부사로, in, gegen, aus, zu, auf, durch는 전치사로, und, als는 접속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¹⁸⁾

이런 불합리한 품사 분류 체계를 지양하고, 두덴 문법 제5판에서는 독일어 품사를 일단 어형이 변화될 수 있는 것과 어형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전자에 동사, 명사, 형용사, 관사, 대명사를 귀속시키고, 후자에 부사, ‘Partikel’, 전치사, 접속사를 귀속시킨다.¹⁹⁾ 그리고 ‘Partikel’을 다루는 단원에서, 이것이 정도나 강도를 표시하거나, 강조를 하는 데 쓰이거나, 화자의 입장을 표현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술하고, 이것을 5 종류²⁰⁾로 세분하고 있다. 이후 이렇게 어형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독일어 품사를 분류하는 방식이 이어져 내려와서, 두덴 문법의 최신판인 제7판에서도 ‘Partikel’은 어형변화가 불가능한 그룹에 속하는 한 품사로 설정되어 있다.²¹⁾ 제5판과의 차이점은 Gesprächspartikel의 한 하위 그룹으로 되어 있던 감탄사를 Ausdruckspartikel로 이름붙여 독립시키고, 의성어도 ‘Partikel’의 한 종류로 추가한 정도일 뿐, ‘Partikel’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크게 달라진

15) ‘Partikel’을 기능어에 속하는 다른 품사들과 구분짓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Ebd. S.475f. 참조.

16) Gradpartikel, Fokuspartikel, Modalpartikel/Abtönungspartikel, Gesprächspartikel, Negationspartikel 등이다. Vgl. Ebd. S.477ff.

17) Vgl. Drosdowski (Hg.): Grammatik der dt. Gegenwartssprache. 4. Aufl., S.88ff.

18) Vgl. Ebd. S.345.

19) Vgl. Drosdowski (Hg.): Grammatik der dt. Gegenwartssprache. 5. Aufl., S.85ff.

20) Vgl. Ebd. S.369f.

21) Vgl. Dudenredaktion (Hg.): Duden. Die Grammatik, S.132f.; S.573f.

점이 없다.²²⁾

한편 이렇게 포함 범위 설정은 다를지라도, 일반적으로는 ‘Partikel’을 독일어 품사 체계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어떤 문법에서는 ‘Partikel’라는 개념이 아예 설정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슐츠/그리스바하는 독일어의 핵심적인 품사를 동사, 명사, 형용사, 대명사, 부사로 설정하고, 이밖에 기능을 표시하는 요소로 관사, 전치사, 접속사를 들고 있을 뿐, ‘Partikel’이란 품사는 인정하지 않는다.²³⁾

이렇게 ‘Partikel’을 다루는 관점이 문법에 따라 아주 다르기 때문에, 타협안을 찾을 수 없는 끝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1996년의 독일어 정서법 신규정에서는 명확한 정의나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대로 이 개념을 사용했는데, 논란이 일자 2004년 개정안에서 이 개념의 뒤에 ‘전치사, 부사’라는 간단한 보충 설명을 붙였다가, 여전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2006년 최종안에서는 아예 이 개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스만의 언어학 사전에서는 이런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서 ‘Partikel’을 어형이 변화될 수 없는 단어들에 대한 총칭이며, 문법에 따라 아주 상이한 품사들을 포괄한다고 소개한 후, 최근에는 ‘Partikel’을 좁은 의미에서, 독립적인 어휘적 의미는 전혀 없거나 별로 없지만, 자신의 관련어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어형이 변화될 수 없고, 문장 성분의 자격이 없는 품사들로 이해한다고 기술한다.²⁴⁾ 일반적인 독일어 사전들은 대체로 이 견해에 따르고 있는데, 예컨대 랑엔샤이트 사전에서는 ‘Partikel’을 좁은 의미로는 ‘(어형변화에 의해) 변화될 수 없으면서, 전치사나 접속사나 부사에 속하지 않는 단어’로 정의하고, 화자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넓은 의미로는 ‘(어형변화에 의해) 변화될 수 없는 단어’로서 전치사나 접속사나 부사를 가리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두툰에서 간행된 여러 사전들에서도 ‘Partikel’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Partikel’은 넓은 의미에서든 좁은 의미에서든 어형이 변화될

22) Vgl. Ebd. S.594ff.

23) Schulz/Griesbach: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S.5f.; S.213ff.

24) Vgl. Bußmann: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371.

수 없는 단어를 지칭하므로, 'Partikel'을 통칭해서 '불변화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물론 좁은 의미의 'Partikel'은 특수한 기능을 갖는 단어로서 그 기능에 걸맞은 번역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넓은 의미의 'Partikel'이고, 좁은 의미의 'Partikel'은 이 영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독일어 정서법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에서는 'Partikel'을 '불변화사'로 번역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듯하다.

한편 이렇게 까다로운 용어를 쓰지 말고, 그 대신 각 경우에 따라 '전치사', '부사' 등의 품사명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내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품사명들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에서 나온 durchbrechen의 경우에는, durch의 품사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예컨대 'nachtwandeln은 명사 Nacht와 동사 wandeln의 결합체이다' 혹은 'freihalten은 형용사 frei와 동사 halten의 결합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 'durchbrechen은 어떤 어떤 품사 durch와 동사 brechen의 결합체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Partikel', 즉 '불변화사'란 용어가 적임자이다. 다시 말해 'durchbrechen은 불변화사 durch와 동사 brechen의 결합체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Partikel', 즉 '불변화사'란 개념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독일어 정서법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6년 규정의 제33조가 불합리한 면을 지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필요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불변화사가 동사와 함께 결합체를 이룰 때, 이런 결합체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두툰 정서법, 1996년의 독일어 정서법 신규정과 2004년의 개정안, 2006년의 최종안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규정되고, 이 규정들에 따라 이 유형에 속하는 결합체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자세히 기술한 대로 불변화사에 속하는 단어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의 양상

자체도 지극히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정서법 개혁으로 인해 이 분야에서 큰 변화가 생기고, 또한 1996년의 신규정의 관련 내용이 2006년의 최종안에서 다시 바뀌는 등의 이유 때문에 그 복잡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불변화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표기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것은 무리이고, 여기서는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가 자신과 함께 결합체를 이루는 동사와 어떤 방식으로 붙여서 혹은 띄어서 표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논의를 국한하려고 한다.

3.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

헬러는 독일어 정서법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aneinander/auseinander/beieinander + 동사’ 같은 결합체들에 관한 규정은 말끔히 정리되었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모든 경우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에는 aneinanderfügen이라고 붙여서 쓰기도 하고, aneinander denken이라고 띄어서 쓰기도 했지만, 이제는 전자도 후자처럼 띄어서 쓴다고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²⁵⁾ 그런데 실제로는, 독일어 정서법의 개혁을 통해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들을 모두 다 띄어서 씀으로써 이런 결합체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모두 다 합리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붙여서 써야하는데도 띄어서 씀으로써 해당 결합체의 의미가 심하게 일그러지는 일도 생기게 된다.²⁶⁾

그렇다면 독일어 정서법의 신규정에서 실제로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통일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독일어 정서법 개혁안을 만든 작업팀이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억지스럽게 통일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 이유는 이런 결합체들을 철저히 망라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아주 적

25) Vgl. Heller: Rechtschreibreform, S.8.

26) 문스케도 이런 잘못된 띄어쓰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른 유형의 실례들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Vgl. Munske(저), 이진희(역): 독일어 맞춤법의 이해, S.129f.

은 자료에만 입각해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1996년의 독일어 정서법 신규정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에는 *aneinander*가 동사와 결합체를 이루는 경우의 실례로 나와 있는 것이 *aneinander denken*, *aneinander grenzen*, *aneinander legen*의 셋 밖에 없다.²⁷⁾ 이런 사정은 2004년의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에 이런 결합체가 아예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²⁸⁾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실례들 내지 용례들을 수집하기 위해 두넛 큰사전, 랑엔샤이트 사전, 바리히 사전²⁹⁾ 등의 여러 사전을 할 수 있는 만큼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독일어 정서법의 신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실례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실례들을 통해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관해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이 분야의 실제 양상이 독일어 정서법의 신규정에 제시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다음의 물음을 통해 조금 맛보기로 한다. 다음 각 경우에서 어느 것이 옳은 표기일까?

1. Wir haben immer *aneinandergeglaubt* / *aneinander geglaubt*.
2. Sie wollen sich *aneinanderrächen* / *aneinander rächen*.
3. Man hat die Gefangenen *aneinandergebunden* / *aneinander gebunden*.
4. Die beiden haben sich *aneinandergeklammert* / *aneinander geklammert*.
5. Sie sollen sich *aneinanderwenden* / *aneinander wenden*.
6. Sie sollen sich *aneinanderhinwenden* / *aneinander hinwenden*.
7. Sie haben sich *aneinandergelehnt* / *aneinander gelehnt*.
8. Sie haben sich *aneinanderangelehnt* / *aneinander angelehnt*.

27) Vgl. 전경재(역): a.a.O., S.49.

28) Vgl. Zwischenstaatliche Kommission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Hg.): a.a.O., S.36.; Vgl. Rat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Hg.): a.a.O., S.34ff.

29) 각각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zehn Bänden, Langenscheidts Großwörte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Wahrig Deutsches Wörterbuch를 가리킨다.

9. Wir haben uns *aneinandergehalten* / *aneinander gehalten*.

10. aus waagerecht *aneinandergesetzten* / *aneinander gesetzten* Stoffbahnen

두덴 정서법에 따르면 1996년에 독일어 정서법이 개혁되기 전까지는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weil sie aneinander (an sich gegenseitig) denken/gedacht haben*), 이미 분리될 수 있는 합성어를 이룬 동사에 덧붙여 쓰이면 (*er hat die Teile aneinander angefügt*), 동사와 항상 띄어서 쓰고, 이와 달리 *aneinander*가 동사가 묘사하는 일을 더 자세히 규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면, 동사와 붙여서 썼다 (*er hat die Teile aneinandergefügt*³⁰⁾,³¹⁾ 하지만 1996년 신규정의 제34조 주₃의 제2항에 있는 ‘전치사와 *einander*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는 항상 동사와 띄어서 쓴다’는 규정에 따라 *aneinander*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는 독일어 정서법이 개혁된 직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띄어서 써야만 했다.³²⁾ 이에 따라 위에 나온 예문들 중 마지막 예문도 ‘... *aneinander gefügt*’로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04년의 개정안에서도 제34조 주₃의 제2항에 그대로 들어 있었기³³⁾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후에도 *aneinander*와 *fügen*의 결합체는 띄어서 써야 옳은 것이 되었다.

그런데 *aneinander*와 *denken*의 결합체는 결코 하나의 동사로 간주할 수 없지만, *aneinander*와 *fügen*의 결합체는 하나의 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합체들까지 반드시 띄어서 쓰도록 한 1996년 신규정과 2004년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아주 심했다. 이 때문에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이 조항이 없어지고, 이런 불변화사가 동사 전첨어 *Verbzusatz*로 사용되면, 부정사, 분사, 정동사 후치 부문장에서만 붙여서 쓰고, 독립적인 단어로 사용되면, 항상 띄어서 쓰도록 규정했다.³⁴⁾ 이에 따라 금방 든 예문은 정서법

30) 예컨대 *er hat die Teile aneinander-, nicht aufeinandergefügt*.

31) Vgl. Dudenredaktion (Hg.): Duden. Rechtschreibung der deutschen Sprache, S.107.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항상 붙여서 쓰는 것은 아니고, 시체가 현재나 과거인 독립적인 문장과 도입어가 없는 부문장에서는 띄어서 쓴다.

32) Vgl. 전경재(역): a.a.O., S.49.

33) Vgl. Zwischenstaatliche Kommission für dt. Rechtschreibung (Hg.): a.a.O., S.36.

34) Vgl. Rat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Hg.): a.a.O., S.35.

개혁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붙여서 쓰도록 되었다 (... aneinandergesetzt).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neinander와 denken의 결합체의 경우에는 정서법 개혁 전에 sie wollen aneinander denken; sie haben aneinander gedacht; um aneinander zu denken로 썼고, 1996년 신규정, 2006년 최종안에서도 변화가 없다.

- aneinander와 anfügen의 결합체의 경우에도 정서법 개혁 전에 er will die Teile aneinander anfügen; er hat die Teile aneinander angefügt; um die Teile aneinander anzufügen로 썼고, 1996년 신규정, 2006년 최종안에서도 변화가 없다.

- aneinander와 fügen의 결합체의 경우에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er will die Teile aneinanderfügen; er hat die Teile aneinandergesetzt; um die Teile aneinanderzufügen로 썼지만, 1996년 신규정에서는 ... aneinander fügen; ... aneinander gesetzt; ... aneinander zu fügen로 써야 했고, 2006년 최종안에서는 다시 정서법 개혁 전처럼 쓰도록 했다.

조사 결과 denken 외에 appellieren, glauben, verzweifeln, zweifeln 등의 일반 동사가 각각 aneinander와 이루는 결합체들의 경우에 aneinander의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가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결합체들은 정서법 개혁 전에 항상 띄어서 썼고, 이들 결합체에 있어서 aneinander가 동사 전첨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2006년의 최종안의 규정에 따라 항상 띄어서 쓴다.

그리고 이런 일반 동사들 외에 sich erfreuen, s.³⁵⁾ erinnern, s. freuen, s. gewöhnen, s. rächen, s. revanchieren, s. reiben³⁶⁾, s. richten, s. vergehen, s. vergreifen, s. versündigen, s. wenden 등의 재귀동사들도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태로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결합체들은 항상 띄어서 썼고, 지금도 그러하다 (예컨대 aneinander와 sich wenden의 결합체의 경우 sie wollen sich oft aneinander wenden; sie haben sich oft aneinander

35) 이하에서 실례로 나오는 재귀동사의 경우 'sich'를 's.'로 표기한다.

36) 'sich über jemanden ärgern und seinen Ärger auch zeigen'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die beiden Temperamente haben sich aneinander geliebt.

gewendet; um sich oft aneinander zu wenden).

aneinander와 vorbeigehen의 결합체의 경우에는,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다가 동사 자체가 분리될 수 있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정서법 개혁 전에 항상 띄어서 썼고, 여기서 aneinander가 동사 전첨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2006년의 최종안의 규정에 따라 항상 띄어서 쓴다 (sie wollten aneinander vorbeigehen; sie sind aneinander vorbeigegangen; um aneinander vorbeizugehen). 조사 결과 vorbei를 동사 전첨어로 지닌 동사로서 aneinander와 함께 쓰이는 동사는 대부분 이동 동사들이었는데, vorbeigehen 외에 vorbeieilen, vorbeifahren, vorbeikönnen, vorbeilaufen, vorbeimarschieren, vorbeireiten, vorbeirennen, vorbeiziehen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동사들 외에도 vorbeidenken, vorbeileben, vorbeireden 등이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에 있어서도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체들도 항상 띄어서 쓰게 되어 있다 (sie müssen aneinander vorbeidenken; die Ehepartner sind immer aneinander vorbeigelebt; weil die beiden jetzt aneinander vorbeireden).

이렇게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태로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분리될 수 있는 일반 합성 동사는 거의 다 vorbei를 동사 전첨어로 지닌 동사인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외에 herantreten과 zurückdenken이 이런 결합체를 이룬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결합체를 이루는 분리될 수 있는 합성 동사들 중에는 s. abreagieren, s. aufgeilen, s. aufrichten³⁷⁾, s. hinwenden, s. zurückerinnern 등의 재귀동사도 있었다.³⁸⁾

이런 결합체들과 달리 예컨대 aneinander와 geraten의 결합체의 경우에는, aneinander가 더 이상 ‘an sich gegenseitig’라는,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

37) ‘sein psychisches Gleichgewicht durch jemanden wiederfinden’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38) 두툰 정서법이나 독일어 정서법 공공 규정에는 이런 유형의 재귀동사들의 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고, 결합체 전체가 ‘in Streit geraten, ein Handgemenge anfangen’의 의미로 사용되며, 또한 geraten이 분리될 수 있는 합성어도 아니기 때문에,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서 썼다 (sie sind deswegen aneinandergeraten; ohne deswegen aneinanderzugeraten). 하지만 aneinander와 geraten의 결합체는 1996년 신규정과 2004년 개정안의 제34조 주₃의 제2항에 따라 한동안 띄어서 써야 옳은 것이 되었는데 (... aneinandergeraten; ... aneinander zu geraten), 이미 위에서 기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결합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동사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합체를 띄어서 쓰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 그러다가 2006년 최종안에 있는, 이런 불변화사가 동사 전첨어로 사용되면, 부정사, 분사, 정동사 후치 부문장에서만 붙여서 쓴다는 규정에 따라 aneinander와 geraten의 결합체를 다시 정서법 개혁 전처럼 붙여서 써야 옳은 것으로 되었다.

이 외에도 조사 결과 bauen, binden, drücken, fesseln, gleiten, grenzen, haften, heften, ketten, klammern, kleben, klingen, knoten, knüpfen, kondensieren, koppeln, legen, nähen, passen, pflanzen, prallen, pressen, reihen, rücken, schieben, schlagen, schmieden, schrauben, schweißen, setzen, stoßen 등의 많은 일반 동사가 aneinander가 더 이상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상태로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결합체들은 aneinander와 geraten의 결합체와 마찬가지로 시제가 현재나 과거인 독립적인 문장과 도입어가 없는 부문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서 썼다 (예컨대 sie haben die Häuser aneinandergebaut; die Gärten dürfen aneinandergrenzen; um zwei Teile aneinanderzusetzen). 하지만 1996년의 신규정에 따라 이런 결합체들은 어떤 경우에든 띄어서 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방금 든 예문들은 한동안 다음과 같이 써야 했다. (... aneinander gebaut; ... aneinander grenzen; ... aneinander zu setzen). 그러다가 2006년의 최종안의 규정에 따라 다시 예전처럼 시제가 현재나 과거인 독립적인 문장과 도입어가 없는 부문장인 경우를 제외하곤 붙여서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반 동사들 외에 s. drängen, s. drücken, s. klammern, s.

kuscheln, s. lehnem, s. reihen, s. schmiegen, s. stellen 등의 재귀동사들도 aneinander가 더 이상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상태로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결합체들은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서 썼지만 (vor Angst haben sich die Menschen dicht aneinandergedrängt; die Bücher haben sich im Regal aneinandergereiht; die beiden Äffchen haben sich aneinandergeschmiegen), 정서법 개혁의 규정에 따라 띄어서 쓰게 되었다 (... dicht aneinander gedrängt; ... aneinander gereiht; ... aneinander geschmiegen). 하지만 지금은 최종안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붙여서 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왜 앞서 나온 재귀동사들의 경우에는 함께 쓰이는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재귀동사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하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예컨대 sich gewöhnen같은 재귀동사의 경우에는 aneinander가 어떤 장소 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닌 반면, 예컨대 여기 나온 sich lehnem같은 재귀동사의 경우에는 aneinander가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사전에서 sich *an et.* gewöhnen과 sich *irgendwohin* lehnem으로 수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생각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³⁹⁾

한편 aneinander가 더 이상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상태로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동사들 중에는 방금 다루어진 단어들 외에 분리될 수 있는 합성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herandürfen, heranfahren, herankommen, heranrollen, heranrücken 같은 heran을 동사 전첨어로 지닌 여러 일반 합성 동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런 동사들은, 비록 aneinander가 더 이상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정서법 개혁 전에도 항상 띄어서 썼고, 해당 결합체 내에서 aneinander가 동사 전첨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2006년의 최종안의 규정에 따라 항상 띄어서 쓴다 (예컨대

39) Vgl. Langenscheidts Großwörte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gewöhnen'; 'lehnen'.

heranrücken의 경우 die beiden wollten dicht aneinander heranrücken; die beiden sind dicht aneinander herangerückt).

그리고 조사 결과 이처럼 aneinander가 더 이상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상태로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합성 동사가 재귀동사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런 재귀동사와 aneinander로 이루어진 결합체도 정서법 개혁 전처럼 지금도 항상 띄어서 쓴다. 예컨대 sich abarbeiten의 경우에는 ‘die zwei Kontrahenten haben sich aneinander abgearbeitet’로, sich anschließen의 경우에는 ‘die beiden wollen sich wieder aneinander anschließen’으로, sich festhalten의 경우에는 ‘weil wir uns treu aneinander festhalten’으로 쓴다. 이 외에도 s. heranarbeiten, s. heranmachen⁴⁰⁾, s. heranschleichen, s. heranschleppen, s. heransetzen, s. herantasten, s. herantrauen, s. heranwagen 같은 heran을 동사 전첨어로 지닌 여러 재귀동사가 이런 성격의 결합체를 이룬다.

이렇게 aneinander가 더 이상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상태로 aneinander와 결합체를 이루는 경우, aneinander와 결합하는 재귀동사가 단일어인가 합성어인가에 따라 해당 결합체의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sich lehnen과 sich anlehnen은 어휘적 의미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정서법 개혁 전에는 sie haben sich aneinandergelehnt - sie haben sich aneinander angelehnt로, 1996년 신규정에 따르면 ... aneinander gelehnt - ... aneinander angelehnt로, 2006년 최종안에 따르면 ... aneinandergelehnt - ... aneinander angelehnt로 표기한다.

조사 결과 이 재귀동사 쌍처럼 aneinander와 함께 쓰이면서 동사 전첨어 an을 지니지 않은 것과 지닌 것으로 된 쌍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 drücken과 s. andrücken, s. klammern과 s. anklammern, s. kuscheln과 s. ankuscheln, s. reihen과 s. anreihen, s. schleichen과 s. anschleichen, s. schmiegen과 s. anschmiegen 등이 그런 쌍들이다. 여기서 각각의 경우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방금 위에서 말한 이유에서 비

40) sich ranmachen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표기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롯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결합체들은,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aneinander에 그런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aneinander와 hängen의 결합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결합체는 - 제4격 목적어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⁴¹⁾ - 어휘적 의미가 ‘서로에게 애착하다’일 때는 전자에 해당되고, 어휘적 의미가 ‘춤추히 (매)달려 있다’일 때는 후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weil die beiden sehr aneinander hängen - weil die Wagen zu dicht aneinanderhängen⁴²⁾). 이것을 정서법 개혁과 연관지어 보다 더 자세히 써 보면 다음과 같다.

- ‘서로에게 애착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정서법 개혁 전에 die beiden haben sehr aneinander gehangen; ohne sehr aneinander zu hängen로 썼고, 1996년 신규정, 2006년 최종안에서도 변화가 없다.

- ‘춤추히 (매)달려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die Wagen haben zu dicht aneinandergehangen; ohne zu dicht aneinanderzuhängen로 썼지만, 1996년 신규정에서는 ... aneinander gehangen; ... aneinander zu hängen으로 써야 했고, 2006년 최종안에서는 다시 정서법 개혁 전처럼 쓰도록 했다.

한편 모델 독한사전에서는 이 결합체의 뜻풀이에서 ‘춤추히 걸려 있다’는 의미의 용례로 ‘die Lampions hingen zu dicht aneinander’가 나와 있고, ‘서로 애착을 느끼다, ……’는 의미의 용례로 ‘die Zwillinge haben sehr aneinandergehangen’이 나와 있는데⁴³⁾, 뒷 용례에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센스 독한사전에는 이 결합체가 자동사로

41) 제4격 목적어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합체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데, 그것은 후자이다 (sie haben Lampions aneinandergehängt).

42) aneinander hangen / aneinanderhängen이라는 표기 방식은 남부 독일의 방언과 스위스에서만 통용되고, 표준 독일어에서는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다.

43) Vgl. 한국독어독문학회(편): 모델 독한사전, S.87.

쓰이는 경우의 뜻풀이에 ‘서로 맞붙어 있다’는 의미만 기술되어 있고, 용례가 나와 있지 않아서⁴⁴⁾,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바리히 사전에는 aneinanderhängen과 정서법 개혁에 의한 새 표기어 aneinander hängen이 나란히 표제어로 나와 있을 뿐, 이 결합체를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에 따라 구분해서 기술한 내용은 없다.

aneinander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로서 이렇게 aneinander가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고, aneinander에 그런 독자적인 의미가 없기도 한 것은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aneinander와 일반 동사의 결합체로서는 aneinander와 hängen의 결합체가 유일하고, 이 외에 aneinander와 채귀동사 sich halten의 결합체가 있을 뿐이다. 이 결합체는 ‘서로 믿고 조언을 구하다’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는 aneinander가 독립적인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서법 개혁 전에도 띄어서 썼고, 1996년 신규정이 나온 직후에나 지금도 띄어서 쓰는 게 옳은 표기 방식이다 (sie halten sich immer aneinander, wenn es Probleme gibt; sie wollten sich immer aneinander halten; sie haben sich immer aneinander gehalten; um sich immer aneinander zu halten).

반면에 이 결합체가 ‘계속해서 바로 옆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aneinander에 상호(연관)성의 표현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서법 개혁 전에는 시제가 현재나 과거인 독립적인 문장과 도입어가 없는 부문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붙여서 썼다 (sie wollten sich dicht aneinanderhalten; sie haben sich dicht aneingehalten; um sich dicht aneinanderzuhalten). 하지만 1996년 신규정의 제34조 주 3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경우에나 띄어서 써야 옳은 것으로 간주되었다가 (... aneinander halten; ... aneinander gehalten; ... aneinander zu halten), 2006년 최종안이 나오고 나서 다시 정서법 개혁 전처럼 시제가 현재나 과거인 독립적인 문장과 도입어가 없는 부문장인 경우는 제외하고 붙여서 쓰게 되었다.

한편 모델 독한사전에는 aneinanderhalten이란 표제어가 있기는 하지만, 함께 표제어로 나온 aneinanderdrücken이나 aneinanderklammern과는 달리

44) Vgl. 허형근: 옛센스 독한사전, S.101.

이 동사가 재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⁴⁵⁾ 그리고 옛 센스 독한사전에는 *aneinanderhalten*이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⁴⁶⁾

독일어 정서법이 개혁되면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 분야들 중의 하나는 분사이다. 이제 *aneinander*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가 분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현재분사 *aneinandergrenzend*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원래 한 단어로 간주되어 붙여썼다 (*Halbleiter-Laser bestehen aus zwei aneinandergrenzenden, p- und n-dotierten Schichten*). 하지만 1996년 신규정의 제36조 주₁의 제1항에 있는 ‘분사의 기반을 이루는 동사가 첫 구성부분과 분리되어 쓰이는 경우에는 분사를 띄어서 쓴다’는 규정⁴⁷⁾에 따라 - *aneinander*와 *grenzen*의 결합체를 이제는 띄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 정서법이 개혁된 후에는 띄어서 써야 했다 (... *aus zwei aneinander grenzenden, ... Schichten*). 하지만 위에서 *aneinander*와 *fügen*의 결합체의 표기에 대해 기술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이런 결합체를 띄어서 쓰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aneinandergrenzen*도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다시 붙여서 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분사 *aneinandergrenzend*도 마찬가지로 붙여서 쓰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둘 다 같은 두덴 출판사에서 발간된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재분사가 - 1996년 신규정과 2006년 최종안의 사이 시기인 - 2000년에 나온 사전에서는 ‘Schädeldach: nahtähnliche Verbindung zwischen *aneinander grenzenden* Knochen des Schädeldachs’로, 2006년에 나온 사전에서는 ‘... zwischen *aneinandergrenzenden* Knochen ...’로 전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⁴⁸⁾ 이 외에도 두 사전에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 *aneinander*를 지닌 현재분사들을 여럿 찾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Schaum: 1. aus einer Vielzahl von *aneinander haftenden* Bläschen

45) Vgl. 한국독어독문학회(편): a.a.O.

46) Vgl. 허형근: a.a.O.

47) Vgl. 전경재(역): a.a.O., S.55.

48) Vgl.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Schädeldach’.

bestehende ...’ (2000년) - ‘... von *aneinanderhaftenden* Bläschen ...’ (2006년); ‘scheppern: 1. (bes. von *aneinander schlagenden*, ... Teilen ...’ (2000년) - ‘... von *aneinanderschlagenden*, ...’.⁴⁹⁾

이런 현재분사들 외에 *aneinander*를 지닌 과거분사들도 수식어 내지 수식어 일부로 쓰이면서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있어서 변화를 겪었다. 과거분사 *aneinandergelegt*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nach bestimmten Regeln *aneinandergelegte* Spielsteine’에서처럼 붙여서 썼지만, 위에서 언급한 1996년 신규정의 제36조 주₁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aneinander*와 *legen*의 결합체를 이제는 띄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 정서법이 개혁된 후에는 띄어서 써야 했다 (... *aneinander gelegte* Spielsteine). 그러다가 2006년의 최종안에 따라 이 결합체를 다시 붙여서 쓰게 되면서, 이 과거분사도 다시 붙여서 쓰게 되었다. 바로 위에 나온 두 사전의 경우를 다시 보면, 예컨대 ‘Häuserblock: mehrere *aneinander gebaute* Häuser ...’ (2000년) - ‘... *aneinander gebaute* Häuser ...’ (2006년); ‘Stufenrock: Damenrock aus waagerecht *aneinander gesetzten* Stoffbahnen’ (2000년) - ‘... aus waagerecht *aneinandergesetzten* Stoffbahnen’ (2006년).⁵⁰⁾

조사 결과 *aneinander*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에서 만들어져서 수식어 내지 수식어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이 외에도 상당수 있었고, 이들 역시 당연히 정서법 개혁으로 인해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혼란이 적잖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aneinander*와 *hängen*의 결합체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 기술한 바 있는데, 이런 이중성은 이 결합체에서 만들어진 분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결합체의 의미가 ‘서로에게 애착하다’일 때는, 그것의 현재분사도 정서법 개혁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띄어서 써야 한다 (*aneinander hängende* Freunde). 반면에 이 결합체의 의미가 ‘춤춤히 (매)달려 있다’일 때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서 썼지만 (*aneinanderhängende* Papierblätter), 1996년 신

49) Vgl. Ebd. ‘Schaum’, ‘scheppern’.

50) Vgl. Ebd. ‘Häuserblock’, ‘Schweinsohr’.

규정에서는 - 해당 결합체를 띄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 띄어서 써야 옳은 표기였다 (*aneinander hängende* Papierblätter). 지금은 2006년의 최종안에 따라 다시 붙여서 써야 한다.

이제 본 단원의 첫머리에 제시했던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 보도록 하자. 1과 2에서는 정서법 개혁 전과 마찬가지로 신규정의 최종안이 나온 후인 지금도 띄어쓰기가 옳은 표기이다. 3과 4에서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쓰기가, 1996년 신규정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가,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붙여쓰기가 각각 옳은 표기이다. 5와 6에서는 정서법 개혁 전과 마찬가지로 신규정의 최종안이 나온 후인 지금도 띄어쓰기가 옳은 표기이다. 7과 8의 경우에는, 7에서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쓰기가, 1996년 신규정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가,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붙여쓰기가 각각 옳은 표기인 반면, 8에서는 정서법 개혁 전과 마찬가지로 신규정의 최종안이 나온 후인 지금도 띄어쓰기가 옳은 표기이다. 9에서는 이 결합체가 ‘서로 믿고 조언을 구하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정서법 개혁 전과 마찬가지로 신규정의 최종안이 나온 후인 지금도 띄어쓰기가 옳은 표기인 반면, 이 결합체가 ‘계속해서 바로 옆에 있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쓰기가, 1996년 신규정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가,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붙여쓰기가 각각 옳은 표기이다. 10에서는 정서법 개혁 전에는 붙여쓰기가, 1996년 신규정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가, 2006년의 최종안에서는 붙여쓰기가 각각 옳은 표기이다.

4. 맺는 말

본고를 쓰기 시작할 때 불변화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유형에 속하는 결합체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를 조사하면서, 그 복잡다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자꾸 눈에 띄었고,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도 없었다. 위에서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대해 본고에서 살펴보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불변화사들 중 하나인 *aneinander*와 동사의 결합체의 표기만 다루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원래는 이런 불변화사들을 알파벳 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 맨앞에 나오는 *aneinander*부터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것과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들을 여러 사전을 통해 조사를 해 보니, 그 수도 독일어 정서법의 공공 규정과 이에 대한 해설서들에 수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것들이 이런 결합체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모두 다 버릴 수 없는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순서의 불변화사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어 정서법의 공공 규정집에 나온,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관한 내용이 빈약한데, 본고에서도 이런 불변화사에 속하는 단어들을 모두 다 다룸으로써 내용이 깊이가 없고 부실해지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이런 불변화사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것들 중의 하나인 *aneinander*를 집중적으로 철저히 다룬다면, *einander*를 지닌 다른 불변화사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불변화사 전반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대해 논의할 때 비교적 내실있는 사전 지식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끝까지 *aneinander* 하나만을 다루게 되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독일어의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들의, 아니면 적어도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의 결합체들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독일어 정서법이 개혁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분야에 정서법 개혁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정서법 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들 때문에 독일어 정서법 신규정의 최종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식을 얻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독일어 정서법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인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이 생겼다면, 본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아직도 체계성이나 완전성과는 적잖이 거리가 있는 독일어 정서법 공공 규정의 최종안이 본고의 논의를 통해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영역에서 적어도 *einander*를 지닌 불변화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표기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체계성과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Drosdowski, Günther (Hg.):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4. Aufl., Dudenverlag, Mannheim u.a. 1984.
- Dudenredaktion (Hg.): Duden. Die Grammatik. 7., völlig neu erarb. u. erw. Aufl., Dudenverlag, Mannheim u.a. 2006.
- Dudenredaktion (Hg.): Duden. Rechtschreibung der deutschen Sprache. 20., völlig neu bearb. u. erw. Aufl. Auf der Grundlage der amtlichen Rechtschreibregeln, Dudenverlag, Mannheim u.a. 1991.
- Güthert, Kerstin: Zur Neuregelung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 ab 1. August 2006,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Mannheim 2006.
- Heller, Klaus: Rechtschreibreform. Eine Zusammenfassung,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Mannheim 1998.
- Internationaler Arbeitskreis für Orthographie (Hg.): Deutsche Rechtschreibung. Regeln und Wörterverzeichnis. Text der amtlichen Regelung, Narr, Tübingen 1996.
- Munske, Horst Haider(저), 이진희(역): 독일어 맞춤법의 이해, 한국문화사, 서울 2008.
- Rat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Hg.): Deutsche Rechtschreibung. Regeln und Wörterverzeichnis. Entsprechend den Empfehlungen des Rats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Überarbeitete Fassung des amtlichen Regelwerks 2004, München/Mannheim 2006.
- Wissenschaftlicher Rat der Dudenredaktion (Hg.):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zehn Bänden. 3., völlig neu bearb. u. erw. Aufl., Dudenverlag, Mannheim 2000.
- Wissenschaftlicher Rat der Dudenredaktion (Hg.): Duden.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6. Aufl., Dudenverlag, Mannheim 2006.
- Zwischenstaatliche Kommission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Hg.):

Deutsche Rechtschreibung. Regeln und Wörterverzeichnis. Amtliche Regelung. Überarbeitete Fassung, Mannheim 2004.

전경재: 독일어 정서법의 신규정, 독일문학 제61집, 1996, S.473-492.

전경재: 형용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결합체의 표기에 관한 규정의 변화, 독일문학 제108집, 2008, S.284-304.

전경재(역): 독일어 정서법. 규칙과 단어 목록, 한양대 출판부, 서울 2000.

한국독어독문학회(편): 모델 독한사전. 재판, 삼화출판사, 서울 2009.

허형근: 옛센스 독한사전. 제2판, 민중서림, 서울 2002.

■ Zusammenfassung

Schreibung von Verbindungen aus Partikel und Verb

Jun, Gyung-Jae (Hanyang Uni.)

Im Bereich Getrennt- und Zusammenschreibung basiert die 20. Aufl. des Rechtschreib-Dudens auf folgendem Grundprinzip: In der Zusammen- und Getrenntschreibung sind nicht alle Bereiche eindeutig geregelt. Wo folgende Hinweise nicht ausreichen und auch das Wörterverzeichnis nicht weiterhilft, schreibe man getrennt. Im Gegensatz dazu geht man im amtlichen Regelwerk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 von 1996 und 2004 bei der Regelung der Getrennt- und Zusammenschreibung davon aus, dass die Getrenntschreibung der Normalfall und daher allein die Zusammenschreibung regelungsbedürftig ist.

Aufgrund dieser einschneidenden Reform tritt bei der Schreibung von Verbindungen aus Partikel und Verb eine große Veränderung ein. Aber dadurch, dass die Neuregelung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 mit den vom Rat für deutsche Rechtschreibung erarbeiteten Änderungen von 2006

auf die Grundeinstellung von 1996 und 2004 verzichtet und sich nun danach richtet, was jeweils gemeint ist und was dem Sprachgebrauch und den Regularitäten des Sprachbaus entspricht, werden die veränderten Schreibweisen von Verbindungen aus Partikel und Verb teilweise rückgängig gemacht.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 anhand von vielen Beispielen erörtert, wie die Getrennt- und Zusammenschreibung von einer Art Verbindungen aus Partikel und Verb, nämlich Verbindungen aus *aneinander* und einem Verb, in der 20. Aufl. des Rechtschreib-Dudens, im amtlichen Regelwerk von 1996 und 2004 sowie in der Neuregelung 2006 nach den jeweiligen eben erwähnten Grundsätzen geregelt ist.

핵심어

정서법 개혁
붙여쓰기
띄어쓰기
불변화사

Stichwörter

Rechtschreibreform
Zusammenschreibung
Getrenntschreibung
Partikel

<논문투고일: 2009.6.30 논문심사일: 2009.7.21 심사완료일: 2009.7.31>